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94-95문) : 제 1 계명

안태환 목사 (피스메이커교회)

1. 제 1 계명의 두 부분

1) 서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20:2)

⇒ 자신을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시는 참 하나님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이유를 제시한다.

①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는 이름을 통해서 순종할 이유를 제시한다.

출3:14 ...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너희에게 율법을 선언하는 나 여호와와는

- 자존자로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 스스로 존재할분 아니라 피조물을 만들고 생명을 준 창조자이다.
- 영원하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는 통치자와 보존자이다.

※ 우리는 자존자, 창조자, 통치자, 보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존재이다.

②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심으로 순종할 이유를 제시한다.

시33:12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을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살후2:13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밖에 없다.

③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이다.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을 드려 마땅함을 증거하신다.

출6: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 서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모든 순종과 존귀와 예배를 하나님께 돌릴 것을 요구하신다.

2) 명령: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목적: 교회에 계시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마땅한 존귀를 그에게 드리는 것이다. =>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①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게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알려주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다.

② “다른 신”이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나 사물이 하나님처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다르고 하나님처럼 역사하지도 않음)

③ “다른 신들을 있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신을 전혀 두지 않는 것, 여러 신들을 두는 것, 계시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는 것, 혹은 말씀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거나 존경하지 않으며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④ “나 외에”(내 앞에)

너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네 마음 은밀한 곳에서도 나 외에는 아무도 두지 말라는 뜻이다.

2. 요구되는 순종의 모습

1) 신지식: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바로 알아야 한다.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상숭배

(1)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2) 다른 신을 섬기지는 않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 신상과 형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경우

출32: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 잘못된 가르침 (가톨릭 마리아 숭배, 잘못된 성찬의 가르침, 미사를 통한 예배의 왜곡)

2) 믿음

견고한 납득(a firm persuasion).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값없는 공활하심으로 약속하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충만히 확신하게 된다.

3)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실한 기대와 현재의 악들로부터 구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따라 완회시켜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벧전1: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4)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며 그의 공활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여 하나님과 하나되어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의 사랑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5) 하나님을 경외함

-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한다.

-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와 하나님에 대한 혐오를 가장 큰 죄로 여기며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이다.

마10:28 ...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두려워 하는 자들은 그 어떠한 일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기를 원치 않고 무슨 일을 하든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는 법이다”(우르시누스)

살전5: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6) 겸손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것들이 우리의 고귀함과 탁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다.

눅17:10 ...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 할찌니라

행12: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7)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갖가지 악과 역경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악한 일을 당해도 불평하지 않고 환난 중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이런 지식과 신뢰로 슬픔과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시37:7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롬8: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